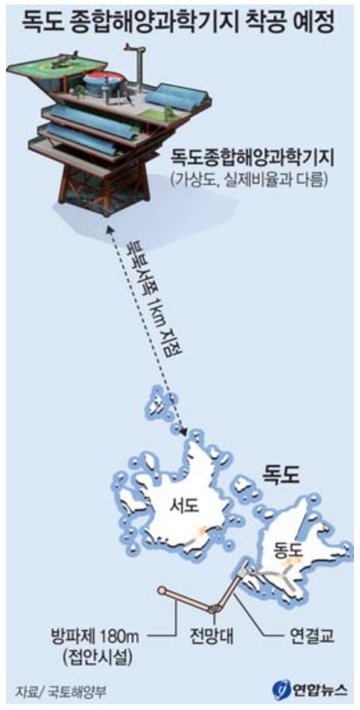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달 착공



연내 구조물 완료…해양·기상·지진 관측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4일 오전 개최한 한나라당과 긴급 간담회와 오후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미리 보고한 자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달 육상에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에 착수한 뒤 오는 12월까지 조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독도 북서쪽 1km 해상에 건설되는 철골기지(연면적 약 2700㎡, 사업비 430억원)로 동해의 해양, 기상, 지진 및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추게 되고 평상시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독도에 해수 통과가 가능한 방파제(길이 295m, 폭 20m)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완공 예정이었던 독도 주민숙소 공사를 5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울릉도 경비행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에 걸려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일반 사업과 달리 대일관계 등을 감안해 다시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주장에 "(예타를) 정책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일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조하는 학습 부교재를 발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고 앞으로 독도교육홍보관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또 독도의 국제적 홍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의 러시아어 및 중국어 인터넷사이트를 개발하고 인터넷에 '동해독도 표기오류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4월 중으로 일본 내 우익 교과서의 채택 저지를 목적으로 일본 지방지치단체 및 학교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열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5월 독도 문제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방안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올해 8월 교사 120명과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독도 현장체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일교포 3세 소프트뱅크社 손정의

일본 지진의연금 1300억 기부

개인 최고액 기록

소프트뱅크사는 3일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마사요시·53) 소프트뱅크 사장이 동일본대지진 의연금으로 100억엔(약 13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일 한국인 3세인 손 사장의 기부액은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유니클로 회장의 개인 의연금 10억엔(약 130억원)을 뛰어넘는 최고액이다.

손 사장은 또 2011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부터 은퇴할 때까지 소프트뱅크 그룹의 임원 보수 전액을 일본적십자사와 아카이하네(赤い羽根) 공동모금에 기부할 계획이다. 2009년도 손 사장의 임원 보수는 1억8000만엔(23억여원)이었다.

손 사장은 이 돈이 재해 고아 등의 지원에 쓰이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트뱅크 사는 기업 차원에서도 10억엔을 기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프트뱅크 모바일이 매장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 있고, 이 액수도 지금까지 약 1억엔에 이르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 인터넷 홈페이지의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손 사장의 자산은 일본 내 최다(세계 113위)인 81억 달러(8조8000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국민 10명중 8명

"火葬 원한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본인의 장례방법으로 화장(火葬)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장사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79.3%가 자신의 향후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매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다.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간편해서(27.0%)', '관리하기 쉬워서(25.0%)', '비용이 저렴해서(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한 후 유골 처리 방식으로는 자연장(39.9%), 봉안시설(32.7%), 산·강 등에 뿌리는 산골(27.3%)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의 총 장례비용은 평균 813만원이었다. 응답자의 45.9%는 적정 장례비용을 묻는 질문에 500만~1000만원이라고 답했다.

조의금은 평균 5만3천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4만~5만원을 낸다는 응답비율은 66.2%로 가장 높았고, 3만원 이하는 17.4%, 6만~10만원은 16.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1차장 전재만·3차장 이종명씨 내정

외교 안보라인 정비 신호탄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의 해외·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제1차장에 전재만(56) 주(駐)중국대사관 공사를, 과학·산업·방첩 업무를 맡는 제3차장에 이종명(54)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전 1차장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로 외무부에 들어가 주일본 1등 서기관, 주광저우 총영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을 지낸 전문 외교관이다.

충남 출신인 이 3차장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5기로 임관해 합참 전력발전부장, 민군심리전부장, 12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역 군인을 국정원 차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과 체제가 바뀐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수 전 3차장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출신인 김숙 전 1차장은 주요국 대사로 나가는 것을 고려해 지난달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차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4강 대사를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송재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4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6명의 발제·토론자와 10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재필 학교 만들어 사상 연구해야"

송재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을 맞아 서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서재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홍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4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송재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내가 읽은 '독립신문'과 언론인 서재필'이라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근대사의 한 축을 이끈 인물인 만큼 학자들끼리 그의 생애에 활동성과를 정확히 짚어낼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서박사는 시대의 개척가"

이날 심포지엄은 보성 출신 서재필 박사의 서거 60주년을 기리기 위해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와 광주일보사가 주최했다. 발제자로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홍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오수열 조선대 교수, 이경희 호남대 교수, 유종원 전남대 교수,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이 참석했다.

◇**'서재필과 개화·민주·독립·통일'**=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 박사야말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극히 순수한 삶을 살았던 '시대의 개척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 박사가 일으킨 갑신정변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외세의 도움으로 시도한 최초의 실패한 개혁이었다"며 "하지만 서 박사는 갑신정변이 무산된 후 '위로부터의 개혁'은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독립신문을 창설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역사속에 기록된 서 박사는 독립신문을 창설한 언론인이 중심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 서 박사는 해방 후 미군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남북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서 박사는 미국에서 사업으로 번 돈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전부 투자하는 등 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와 독립에 최우선을 둔 '민족 최초의 세계인'이었다고 백 위원은 덧붙였다.

◇**'내가 읽은 독립신문과 언론인 서재필'**=김홍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 박사가 만든 독립신문을 '현대한국사회과학 요람지요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1917년 출판된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이광수의 '무정'에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당시 작가마저 사족을 통해 '생물학'은 주인공도 모를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립신문은 그보다 20년 전인 1897년도 독립신문에서 서 박사가 생물학 강의를 연재한 적이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독립신문은 고종과 백성대표 200인이 나서 조선 역사상 최초로 군민(君民)이 직접 체결한 사회계약인 '광무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세세히 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자료들이 독립신문에서 발견되고 있어 진정한 그 시대의 언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독립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서 박사는 독립신문을 통해 망명 시절 배운 학문을 바탕으로

김홍우

서울대 명예교수

"남북통일에도 많은 노력"

여성의 권리신장, 조혼 등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허상'(虛像)이 아닌 '실상'(實相)의 학문을 배우자고 주장하는 등 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많은 글들이 그의 손에서 작성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독립신문은 당시에도 현실에 대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과학은 독립신문이 제기한 과제를 사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지난날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